

### 얼음 깨기

### 새클턴의 남극 탐험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은 남극 탐험 도중 배가 얼음에 갇히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와 끝없는 눈보라 속에서 대원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클턴은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길을 직접 앞장서 걸었고, 지친 대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결국 전원을 살아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나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 교회행사

#### 5월

- 1-5일 더함공동체 태국 단기선교
- 3일 어린이주일
- 10일 어버이주일
-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 16일 홀리빛키(어린이페스티벌)
- 23-24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 31일 더가족 세미나 5기 종강

#### 6월

- 7, 14일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5기
-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15-17일 어와나 EBS
-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예비학교 개강
- 26-28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 경배 찬양

###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 선교

### [유성재 선교사]

#### 일본

1. 여성회 자연묵상 모임을 통해 주님을 깊게 경험하며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2. 노조미전도행사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초청하는 미신자들이 참석하여 복음에 반응하도록.
3. 전도지역, 시편묵상모임, 영성지도사역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4. 기보순례길(오카야마켄 기요네~히로시마켄 칸나베 약40Km예정)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전도지 배포를 통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5.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과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 소식

#### 1. HUPE 부모 세미나

강사 양은순 박사님께서 부모자녀대화법(5월 28일~30일)과 성경적 자녀교육(6월 20일~7월 18일, 5주 zoom 수업)을 하십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10-8664-5245 천현수 목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결혼예비학교

6월 20일(토)~7월 11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요셉의 꿈에서 4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문의는 010-8664-5245 천현수 목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문장 큰 울림

“**믿음은 미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 엘리자베스 엘리엇 -

## [창세기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3장은 단순히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 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랫동안 자기 상처와 집착 속에 갇혀 있던 야곱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요셉을 잃은 상실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남은 아들 베냐민을 붙드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 야곱의 집착을 흔드시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 1. 기근이 심해지자 야곱의 집착이 흔들리다 (1-5절)

4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야곱은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한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기근이 끝나지 않을까?” “굳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식량을 구하러 가야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시므온이 아직 애굽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야곱은 20년 동안 베냐민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은 이후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형들에게 심부름 가던 그 뒷모습, 그것이 야곱 마음속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서 야곱은 남은 라헬의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랑을 넘어선 집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냐민은 이미 서른 살이 넘는 장성한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과 네 집착으로는 가족을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을 흔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눔]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놓지 못하는 “나의 베냐민” 은 무엇입니까?

### 2.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고 나서다 (6-10절)

야곱이 여전히 머뭇거리자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9절) 이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세기 38장에서 그는 다말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수치를 통해 유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전의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동생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다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나눔]  
나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감당하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의 성숙과 변화를 원하실까요?

### 3.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11-15절)

결국 야곱은 무너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14절)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42장 끝에서 야곱은 말했습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 모든 기준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시선이 베냐민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는 약 20년의 간격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벨엔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브니엘에서 씨름한 후 그리고 지금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삶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집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43장은 단순한 식량 이야기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야곱의 집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나의 “베냐민” 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계십니다.

## 나눔

[잃게 되면 잃으리다 / 창세기 43장 1-15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나라를 세우기며 말씀을 비추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 기도

**담보 되신 예수님** 내 유익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살리고 세워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